

성덕대왕 신종의 심금을 울리는 소리 분석에 관한 연구

함명규, 배명진

승실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On a Analysis of the Divine Bell of King Söngdök with Emotional Sound

Myungkyu Ham, Myungjin Bae

Dept. of Telecommunication, Soongsil University
E-mail : mkham@assp.soongsil.ac.kr

요약문

에밀레종은 771년도에 성덕대왕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34년간 주조(높이 3.663m, 최대지름 2.227m, 무게 18,900kg)하여 만든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외형도 미려하지만 종소리는 천, 지, 인을 뒤흔드는 신비감을 갖추고 있다. 에밀레 종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 애끓는 소리, 심금을 울리는 소리 등의 특징을 갖는데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는 맥놀이 현상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맥놀이 현상의 규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에밀레 종소리가 심금을 울리는 소리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우리 선조들이 750년경에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응용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1228년 전에 완성한 우리민족의 지혜와 숨결이 스며있는 에밀레 종소리의 세 가지를 규명하고 재현함으로써 문화민족의 자부심으로 새로운 세대를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자 한다.

1. 연구개발 배경

한국 종은 오므라진 주둥이와 두툼한 입술을 가지고 있어서 타종을 하면 안에서 회돌아 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은 공기를 밖으로 새나오지 않고 머물게 하여 여운을 보다 길게 유지하는 신비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종들 중에

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이 있다.

에밀레 종소리는 복합적인 소리성분들로 이루어져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소리와 애끓는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면서 맥놀이 현상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3초마다 반복되는 맥놀이 주기는 인간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의 호흡하는 간격과도 일치하는 종소리의 신비감이 스며져 있다. 따라서 에밀레 종소리는 첫 타종 시에 나타나는 강렬한 소리에 정신을 집중하고, 이어지는 3초 주기의 반복된 맥놀이를 고향을 가다듬게 되는 우리 민족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고유의 문화유산이다.

소리뿐만 아니라 에밀레종의 외형이 미려하고 신비스러운 자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오랫동안 시도되어져 왔다. 특히 200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범종의 제작은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요 희망을 여는 기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의 외형은 어느 정도 모방할 수 있지만, 에밀레 종소리는 재현할 수 없었다. 특히 에밀레 종소리에서 들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맥놀이 현상에 대한 발생원인을 분석하는 결과는 많이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소리에 대한 연구는 전혀 규명 되지 못하고 있었다.

2. 에밀레 종소리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2-1. 에밀레종소리의 특성

에밀레종은 성덕대왕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34년 동안 제작한 것으로 771년에 완성한 세계적인 문화유산 중에 하나이다. 외형도 미려하고 웅장하지만 그 종소리도 웅장하면서 섬세하다. 에밀레 종소리는 범종이 갖출 수 있는 3가지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종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맥놀이 현상이 나타나고, 아이가 엄마를 찾는 듯한 애틋한 소리가 들리며, 우리민족의 얼이 스며있는 심금을 울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들린다.

2-2. 에밀레 종소리에 대한 연구사례

지금까지 에밀레종의 제조비법이나 종소리의 신비를 밝히려고 많은 노력이 오랫동안 시도되어져 왔으나, 아직까지는 그 실체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자나 전문가들 중에서는 그 종소리를 재현하기 위해 그 모양과 성분을 분석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일부는 종의 구조를 분석하여 맥놀이 현상을 컴퓨터를 통해 재현하기도 하고, 채집되는 종소리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하였다[1]-[5]. 그렇지만, 우리민족의 고유한 숨결이 스며있는 에밀레 종소리의 복합적인 소리 성분에 대한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은 아직 명확히 해석되지 않았다.

3. 에밀레 종소리의 재현 연구

먼저 경주박물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소리의 성분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주박물관의 종소리에서는 시간이 진행함에 따라 종소리의 진폭이 단순하게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홍준의 문화답사기의 자료, KBS의 자료, 과학원의 자료, 김벌래씨의 자료, 사이버성전의 자료 등을 통해 이전의 에밀레 종소리와 지금의 종소리를 비교 분석하였다. 경주박물관에서 93년도에 녹음한 종소리를 성분분석기로 살펴보면, 소리의 바탕은 분명한 에밀레 종소리였으나, 끊어질 듯 이어지는 맥놀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에밀레 종의 외형은 깨어질까 봐 93년부터 타종하지 않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그 소리는 에밀레 종소리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병들어 있었다. 이전의 종소리는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우렁차고 신비스러운 소리였으나 최근의 종소리는 그렇지 못하였다.

성덕대왕신종의 11분의 1로 축소한 에밀레 모형

종을 제작하여, 타종실험과 성분분석 실험을 계속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에밀레 종소리에 대한 음원을 이용하여 1228년 전에 제조한 에밀레 종소리의 심금을 울리는 소리에 대해 완전히 규명하는데 성공하였다.

4. 에밀레 종소리의 복합적인 소리성분

한국에는 한국적인 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유의 종소리인 에밀레 종소리에서 한국의 정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에밀레 종소리에는 세가지 소리의 특성이 들어있다.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소리, 어린애가 엄마를 찾으며 우는 것 같은 애틋한 소리, 그리고 끊어질 듯 이어지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가 에밀레 종소리에 들어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에밀레종을 보관 및 전시하고 있는 곳이며, 박물관 입구의 우측에는 우리를 제일 먼저 반겨주는 에밀레종이 전시되어져 있다. 그곳에 가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2시간 단위로 에밀레 종소리를 녹음테이프를 들려준다.

그림 4-1의 파형은 경주박물관에서 판매중인 에밀레 종소리의 녹음 파형이며 10여초의 시간이 진행함에 따라 종소리의 진폭이 단순하게 감소되고 있다. 이 종소리에는 애틋한 소리나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나 에밀레 종소리의 바탕인 심금을 울리는 소리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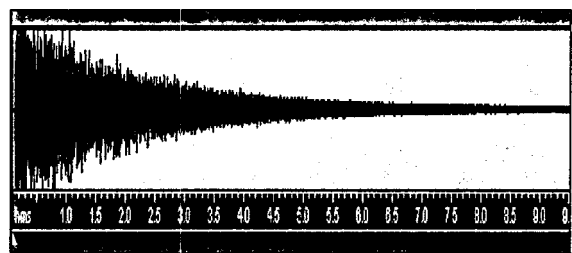


그림 4-1. 경주박물관에서 판매중인 에밀레 종소리의 파형

에밀레 종소리의 주파수성분은 66Hz, 166Hz, 360Hz, 477Hz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6Hz의 성분은 공기 중에서보다는 땅을 통해서 전파되고, 또 사람의 귀보다는 피부에서 진동으로 잘 흡수된다. 종에

서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166, 360, 477Hz의 주파수성분이 주로 들리게 되는데, 이 주파수성분은 심금을 울리는 소리의 바탕음이 된다. 그림 4-2는 에밀레 종소리에 대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에밀레 종소리의 주파수 분포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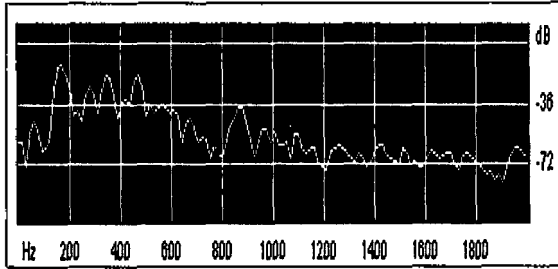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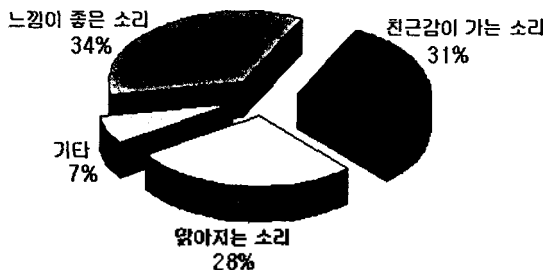


그림 4-2. 에밀레 종소리의 주파수 스펙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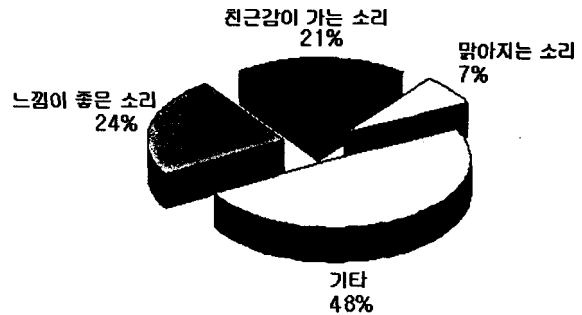
5. 실험 및 결과

종소리의 분석을 위해 IBM-PC/pentium(233MHz)에 음성 입·출력용 16bit AD/DA 변환기를 인터페이스하여 사용하였다. 다양한 종소리를 대학생 200명에게 들려주고 그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전국 사찰에 걸쳐있는 주요 종소리(상원사종, 해인사종, 용문사종 등) 중에서 10가지를 들려주고 가장 가슴에 와 닿는 소리를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자의 97.5%가 에밀레 종소리를 선택하였다. 선택한 이유로는 그냥 느낌이 좋은 소리(35%), 친근감이 가는 소리(31%), 마음이 맑아지는 소리(27.5%), 이유 없음(6.5%) 등의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에밀레종소리가 갖추고 있는 소리의 성분들에서 친근감이나 정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한 현상이 징소리에서도 나타난다. 사물놀이 4개의 악기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소리는 99%의 학생이 선호한 징소리이다. 그 이유로는 느낌이 좋아서(23.5%), 친근감이 가서(20.5%), 마음이 맑아지는 소

리(7%), 이유 없음(49%) 등이었다. 징소리의 주파수 성분은 140, 280, 400Hz 등이다.



에밀레종을 주조할 당시에 종소리의 방향은 신의 소리(또는 부처의 소리)를 목표로 하였다. 신의 소리는 인간이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들었을 때 웅장하고 정감이 가는 소리를 말한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소리성분을 지니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사람의 목소리에 대해 주파수성분을 분석해보면 남녀노소에 따라 다르지만, 굵직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신의 소리를 내는 기준이라면, 그 기본주파수는 150Hz 근방이 된다. 목소리는 기본주파수 외에도 이들의 고조파인 300, 450Hz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 주파수는 실제 에밀레 종소리의 진동주파수에 근접한다. 그림 5-1은 사람이 발성한 “이”에 대한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150Hz의 성분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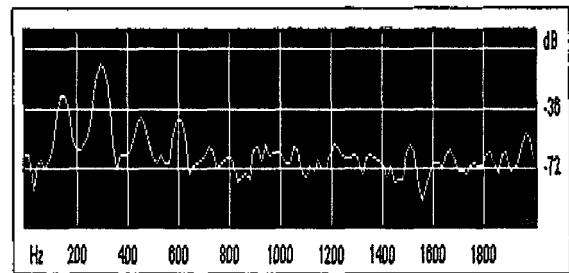


그림 5-1. 목소리 /이/의 주파수 스펙트럼

사람들이 평소에 말을 하게 되면 목 하부의 성대가 진동하여 목구멍과 입을 통해 음파가 공기 층으로 빠져 나가게 된다. 동시에 성대의 진동이 갈비뼈로 쌓여진 주요 장기에 전달되는데, 우리가 말을 하면 목소리의 기본주파수로 가슴에 진동을 계속 가하게 되어, 그 진동주파수에 익숙하게 된다. 만일 우리 목소리의 진동주파수와 비슷한 소리가 외부에서 들리게 되면, 그 소리에서 친근감과 다정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소리가 바로 심금을 울리는 소리이다. 징소리나 에밀레 종소리에서 친근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중년 남성의 목소리에서 발생되는 소리의 기본주파수는 약 150Hz 정도이고, 에밀레 종소리는 170Hz, 징은 140Hz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소리에 낮은 정감을 느끼게 된다.

6. 결론

에밀레종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 애끊는 소리, 심금을 울리는 소리 등의 특징을 갖는다. 지금까지 맥놀이 현상의 규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심금을 울리는 소리에 대한 연구를 실험을 통해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리는 그 소리가 담겨있는 공간을 상징한다.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적인 소리가 미국에는 미국적인 소리가 있다. 한국에는 한국적인 소리가 있다. 대표적인 고유의 종소리인 에밀레 종소리에서 한국의 정서를 발견했다. 이 에밀레 종소리에는 새가져 소리의 특성이 들어있다.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소리, 어린애가 엄마를 찾으며 우는 것 같은 애끊는 소리, 그리고 끊어질 듯 이어지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에 에밀레 종소리에 들어있다.

에밀레 종소리의 바탕을 이루는 진동주파수는 66, 166, 360, 477Hz 등으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 진동주파수와 거의 일치한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성대의 진동으로 인해 가슴이 계속하여 특정 진동주파수로 떨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때 들리는 종소리의 진동주기가 사람의 성대 진동주기와 일치한다면 진동주파수의 동기가 이루어져 사람들은 심금을 울리는 소리로 느끼게 된다. 에밀레 종소리에서 정감을 느끼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밀레 종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심금을 울리는 소리”를 종소리의 고유진동수로 나타내어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이로써 우리 민족이 1300여년 전에 이미 이러한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재삼 확인한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만 전자 및 정보통신부에서 일등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성덕대왕 신종은 우리민족 자긍심의 원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원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에밀레 종소리를 잘 보관하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6. 참고 문헌

- [1] Y.-H. Yum, J. M. Lee, and S. H. Kim, "A study on the vibration and sound of bells with slight asymmetry" Proceedings 4th International Modal Analysis Conference, L. A., U. S. A, pp.75-80, 1986.
- [2] 남천우, "유물의 재발견", 한국서울, 정음사, p.273, 1987.
- [3] 국립경주박물관, "성덕대왕신종 종합논문집", 1999.
- [4] 김양한, "음향진동측정을 통한 성덕대왕신종의 소리특성 탐구", 보고서 자료, 1997.
- [5] 함명규, 장금영, 박원, 배명진, "도플러 효과에 의한 성덕대왕 신종의 맥놀이 현상 규명", 음향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 논문발표대회, 1999년 11월.